"출판은 총체적 문화교류의 실질적 중개역"

'수확'에의 성급한 기대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선행돼야

李起雄
출판협회 부회장 · 열화당 대표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이룬 지 한세기를 넘긴 시점에서야 양국의 출판인들이 상호 주도하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과 동구권의 개방으로 상징되는 세계질서의 재편, 그리고 인류 미래에의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아 이제 양국 문화교류의 실질적 지주가 될 출판계 공동관심사를 검토하고 그 협조에의 전망을 가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척 의미깊은 일이라 하겠다.

돌아볼 때, 프랑스의 출판은 제2제정기의 도약기를 발판으로 프랑스어권은 물론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광대한 독자층을 확보해가면서 인류문화의 상호이해 및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더구나, 프랑스의 출판문화는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계몽주의정신의 승리였던 「백과전서」의 위대한 유산을 담보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하나의 장으로 엮어 보다 많은 대중에게 호소한다는 출판매체의 전진적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는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이룩한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련과 도약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한편 한국은, 멀리는 중세기의 금속활자본의 인류사상 최초의 발명이라는 찬란한 전통 위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침탈, 그리고 조국분단과 내전이라는 오늘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세계 8대 문자문화권 가운데 단일어권으로는 가장 뛰어난 교육열과 낮은 문맹율을 뒷받침으로 풍부한 출판의 생산과 보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출판산업과 문화는 지금 중대한 시련과 도약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출판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아직까지 공기업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한 사기업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달리 국가나 사회제도의 이렇다 할 효율적인 지원의 혜택도 입지 못한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독자를 개발하면서 정보의 '꽃'을 피우고 지식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전문적 출판인이나 편집인을 양성하고 출판문화를 연구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전무하다시피하다는 사실은 한국출판의 내 · 외적 역경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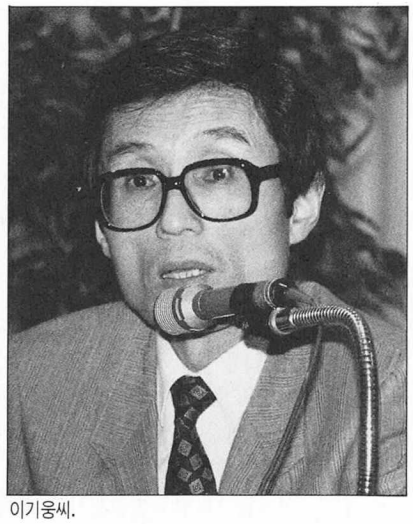
총체적 문화교류의 실질적 중개역을 맡게 될 한 · 불 양국의 출판교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같은 상호교류의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소득을 거두기 위한 현실적이고 항시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새로이 발족된 문화부의 원년을 맞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문화정책이 이루어지는 문화전환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낙후된 각급 도서관이나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서점에 의존하고 있는 유통구조,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형태로 잠복해 있는 출판의 전근대성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와같이 유네스코가 발표하는 지표나 각종 경제수치상의 자료로부터가 아니라, 현실의 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 출판현실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출판인과 독자 상호의 잠재적 역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될 때에라야만 비로소 우리는, 관념적이며 이상론적인 상호교류와 협조를 넘어서는 진정한 대화의 활로를 탁 터 놓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양문화권에 있어 극동문화의 중심적 역할 및 한국문화의 위상과 특성, 즉 각 역사의 단계마다 대륙의 문화(중국)와 도서문화(일본)를 중개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외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온 유연성과 독자성 그리고 고유성에 대한 이해 또한 선행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상호교류의 항시적 장치 마련 시급

사무엘 베케트나 알베르 까뮈와 같은 현대의 대가는 물론, 때로는 「레미제라블」의 문학으로, 그리고 때로는 밀레의 미술이나 드뷔시의 음악으로, 때로는 原電의 테크놀로지로 한국민의 가슴속에 많은 인류유산의 훈기를 전해준 프랑스문화에 대한 한국민의 수용에 비할 때, 프랑스 대중에게 한국문화의 정체와 그 높은 향기를 전해 줄 수 있는 출판매체의


이기웅씨.

역할이 과연 있었는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새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향가」와 원효와 경주남산의 불상들, 그리고 정약용과 겸재와 황순원과 조세희를 아는 프랑스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양국의 출판인의 문화중개자로서의 일차적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저작권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문화교류에 합리적 가교의 설치가 가능해진 지금 우선 시급한 것은, 상대방의 토양과 풍토 및 여건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구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합리적 조약은 하나의 억압과 후퇴의 장치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수확을 위한 적절한 밑거름이 아니라, 너무 일찍 많이 뿌린 농약의 남용과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확에의 성급한 기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토양과 풍토, 그리고 문화공동체의 완강한 사고방식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한국의 출판인들은 내외적으로 곤궁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일정한 성장의 토대 위에서 해외문화의 훌륭한 방법과 교훈을 배우고 터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문화적 역량을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의욕에 넘치고도 있다. 안으로는 '출판도시'라는 세계사상 유례없는 문화 및 산업도시의 건설에 그 힘을 결집시키고 있고, 밖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같이 해외의 출판관계자와의 직접적 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 문화교류의 실질적 중개역을 담당하게 될 한 · 불 양국의 출판교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리라는 점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같은 상호교류의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소득을 거두기 위한 현실적이고 항시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에 본인은 한국의 출판인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사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출판교류 현황에 있어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항시적인 실무교류의 교섭창구 혹은 기구의 선정이나 설치

둘째, 발행인 상호간의 정례적인 모임

셋째, 출판전문인의 상호교류 및 축적된 노하우 교환을 위한 연속프로그램 개발

넷째, 양국출판의 대중적 소개와 선전을 위한 전시회 및 기타 행사의 정례화

다섯째,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관계 자료 및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관계자료의 공개 및 상호 출판 모색

여섯째, 한국 전통 및 현대문화 예술의 소개를 위한 프랑스와의 공동 출판

일곱째, 양국 출판물 번역을 위한 지원제도의 설치.

국제간 일반적 관례의 상투성 벗어나야

이밖에도 일산에 건설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출판도시에도 프랑스 도서문화 당국 및 출판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상호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공사의 채널을 통한 친목도모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출판인들이 단지 프랑스 문화를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 적극적인 안내의 역할을 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시안들은 실질적인 권한과 대표성이 위임된 발행인이나 단체에 의해 주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 기구는 국제간의 일반적 관례의 상투성과 비합리적 제한을 뛰어넘어, 한 · 불 쌍방의 특수한 이해에 기초하여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양국의 출판교류에 명실상부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미래에의 비전에 의한 과감하고 신뢰에찬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는다.